

2017년 제5차
문화재위원회(동산문화재분과) 회의록

2017. 09. 15. (금)

서울특별시
(문화본부)

제5차 「문화재위원회(동산문화재분과)」 회의록

< 회의 개최 개요 >

- 일 시 : 2017. 09. 15. (금) 10:00
- 장 소 :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
- 참 석 : 분과위원장 등 10명
- 안 건 : 총 19건
 - 시지정문화재 보수대상 선정 자문 : 1건
 -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: 6건
 -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심의 : 3건
 - 국가/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심의 : 8건
 - 문화재 명칭변경 지정심의 : 1건

개회

분과위원장

- 성원이 되었으니, 회의 시작하겠습니다.

■ 시지정문화재 보수대상 선정 자문

□ 2018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자문

○ ○○○ 주무관

- 2018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위원님들 모시고, 건축분과, 기념물분과, 동산분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. 조사건은 22개고요. 총 22개 중에 건축분과 10개, 기념물분과 7개, 동산분과가 총 5건 있었습니다. 약사사 3층석탑 1건, 화계사 4건으로 위원장님, ○○○ 위원님, ○○○ 위원님 참여 하시고, ○○○ 소장이 함께 조사했습니다.

- [보수대상 설명]

○ ○○○ 위원

- 이 경우는 지금 한번 했었던 이력 같은 것은 없는 거죠?

○ ○○○ 주무관

- 예.

○ 분과위원장

- 이 건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.

[일동 동의]

■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

□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

○ 구청 담당자

- 이 현상변경 건은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공사고요.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4호의 현상변경 허가신청의 건입니다.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계내용은 업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과업내용은 마애관음보살좌상의 풍화훼손도 조사, 마애불상 주변의 수목 등 조사하여 제거 및 정비계획 실시, 불상표면의 지의류 세척 등 오염부분 제거, 암석의 균열, 박리박락 등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처리 및 암석강화조치 실시입니다. 현황은 좌측면과 하부에 지의류 및 이끼류가 많이 끼어서 흑화오염이 되어 있고요. 오랜 시간 동안 자연환경 노출에 의해서 균열과 박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설계업체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

○ 보수업체

- [보수계획 설명]

○ ○○○ 위원

- 궁금한 게 있는데, 흑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?

○ 보수업체

- 오랜 시간 자연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쪽이 비와 습기가 많이 흘러 내려가지고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런데 왜 그쪽만 심한 거죠?

○ 보수업체

- 이쪽 부분이 레벨 상 좀 낮아서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러면 그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럴 거 아닌가요?

○ 보수업체

- 이쪽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면 뭔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훼손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저 위가 파여 있어서 웅덩이에 물이 고이니까, 그 물이 흘러 내려서 심해지는 거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제 생각은 거기에 뭔가 설치하기 어렵다면 충전재처럼 해서 한쪽으로 물을 뒤로 빼거나 하는 방식을 만들어줘야지, 안그러면 저거는 2~3년 후면 다시 흑화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예산 투입한 것만큼 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. 이쪽이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. 그러면 그 위에도 지붕이라든가 뭔가를 씌운다는 것은 어렵겠지만, 어차피 아래에도 충전재를 집어넣어서 보강하듯이, 위쪽을 조금 보강해서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,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기본적인 조치인거지, 흑화는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, 그 의견이 나왔어요.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지마라고 했어요. 왜냐면 그것은 전체적인

현상변경이 되기 때문에,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8천만원 가지고 그거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. 그래서 다음 기회에 물꼬를 이쪽으로 빼라고 의견을 냈어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지금 흑화를 제거를 해도 내년에 비가 오면 그 부분은 계속 흑화가 되잖아요. 벗겨낸 상태에서,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오면 더 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설계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, 앞부분은 안보일거예요. 뒷부분이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런데 뒷부분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?

○ 보수업체

-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했는데, 여기 단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, 이쪽이 파여져 있어서 레벨이 낮다보니까.

○ 분과위원장

- 거기 물꼬를 돌릴 수는 있어요?

○ 보수업체

- 물꼬를 돌린다는 것은 여기를 파야 된다는 얘긴데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파야 된다는 게 아니라, 보강을 해서 뒤로 해서 내려가게 하는 거죠.

- 뒷부분을 충전 해서 뒤로 내려가게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흑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어차피 내년에 저긴 물이 또 내려올거라고요. 비가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고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의류가 있다고 하고, 옆에 나무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는데요.

○ 보수업체

- 저희가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불상에 관해서 이 나무들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수목제거는 안 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러면 지의류 부분은 여길 안 쓰는 게 더 낫겠어요. 지금 흑화부분 얘기하면서 지의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.

(업체 퇴장)

○ 분과위원장

- 우선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, 위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,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이런 조건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백탁처럼 너무 과도하게 세척하지 말라.

○ ○○○ 위원

- 이걸 그냥 클리닝으로 끝내고, 나중에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죠.

○ 분과위원장

- 여기에 과도한 클리닝은 하지 않는다,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죠.

(일동동의)

□ 봉천동 마애미륵불좌상

○ 구청 담당자

- 이번 현상변경 심의 대상은 봉천동 마애미륵불좌상이고요. 인현동 4-9의 등산객이 많이 오가는 약수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현재 상태는 기름 등의 액체로 인해서 안면부가 오염되어 있고, 마애불좌상면에 오염물질이 고여 있는 상태인데요. 최초 민원은 8월 31일이었고요. 그 뒤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, 이 위쪽에 상봉약수터가 있는데 위에서 밑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가 액체를 부었을 때, 마애면에 일부 맞고 바닥면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습식세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설계업체는 어디예요?

- 여기 얼굴이랑 바닥면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?

○ ○○○ 위원

- 과학적 조사는 해 봤나요?

○ 보수업체

-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. 봤을 때, 기름때 같은 유기오염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중성세제 하기 전에, 과학적으로 성분 조사는 할 수 있나요? 그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오염이 생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

- 저기다 촛불을 켜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?

○ 구청 담당자

- 그런 건 아니고요. 액체를 만져보면 미끌미끌해서 기름 같은 거고요.

○ 분과위원장

- 또 누군가 와서 거기다가 그러면 아무리 보존처리를 해도 관리를 안 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.

○ 구청 담당자

-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위에 약수터가 있는데, 아래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남아있는 액체를 흘리면서 마애불 얼굴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요? 보존처리를 해도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?

○ 구청 담당자

- 저희가 표지판을 정비해서 밑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위에 난간을 설치하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아랫부분에 무릎부분도 어둡지 않나요?

○ 구청 담당자

- 그 부분은 쪼면서 생긴 원형 같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.

○ 보수업체

- 무릎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 부분도 일반적인 석조물의 오염으로 판단을 했는데요. 금번 사업 자체가 유기오염물이 묻은 부분을 보기가 안 좋으니까 긴급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밑 부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만약 밑 부분까지 보수하는 걸로 하면 설계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만약에 위쪽에 망이나 이런 것까지 설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?

○ 구청 담당자

-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를 설치하기가 조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보행폭이 매우 좁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그것은 안내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.

-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

(업체퇴장)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러면 이것은 세척정도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

(일동동의)

□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및 오여래도

- 보수업체
 -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86호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및 오여래도 보존처리 설계용역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
- 분과위원장
 -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, 굽게말이 축을 사용했을 때 보관상자에 안전하게 들어가느냐는 거죠?
- 보수업체
 - 네. 맞습니다. 보충내용 2가지는 내용요약정리와 굽게말이 축 문제였습니다.
 - {설명}
- 분과위원장
 - 굽게말이 축을 직경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한가요?
- 보수업체
 - 저는 20센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
- ○○○ 위원
 - 그랬을 경우에 여유가 계산이 되나요?
- 보수업체
 - 계산상으로는 양쪽에 1.55센치 정도 남습니다.
- ○○○ 위원
 - 괘불함에 맞게 하는 최저치가 20센티라는 거죠?

- 보수업체
 - 네.
- 분과위원장
 - 근데 이걸 뽀뽀하게 감고, 느슨하게 감고 이게 아니고, 통상적으로 안전하게 감을 때 어느 정도 남는다고 얘기해야죠.
- ○○○ 위원
 - 제 생각으로는, 이걸 말았을 때 1.5센티 간격이 남으면 너무 좁아요. 몇 년 지나면 늘어나요.
- ○○○ 위원
 - 18센티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
- ○○○ 위원
 - 이걸 널널하게 말아야 되거든요.
- 분과위원장
 - 그럼 18센티로 하는 걸로 합시다.
- ○○○ 위원
 - (꺼내기 쉽게) 괘불을 넣기 전에 중간 중간에 끈을 넣어주죠.
- ○○○ 위원
 - 바닥에 놓고 끈을 양쪽에 넣어서 천을 덮어주는 걸로 하죠. 세명이나 네 명이 양쪽에서 들 수 있게요.
- 분과위원장
 - 무슨 말인지 알겠죠?

○ 보수업체

- 네. 알겠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림 (굵게말이 축은) 이 크기(1.8센티)로 하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제가 없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겠지만, 오여래도 보존처리가 있는데 여기 단계를 보면 안료를 제거하고, 배접지를 제거하고, 이런 거는 있는데, 이것도 박락이나 손상부분이 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.

○ 보수업체

- 이게 재질이 종이여가지고요. 같은 재질로 결손부 메움을 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런 걸 여기에(보고서) 쓰고 그래야지. 내용이 없네요.

그것을 보존처리 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거의 똑같고, 단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.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 놓으면 제작 과정이 믿음이 안 가는데요?

○ ○○○ 위원

- 그건 괄불함 보존처리도 마찬가지인데요. 바닥부 갈라짐은 야교를 접착한다, 이렇게 해서, 피스도 빼내고 나면 구멍부 충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등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이걸 설계를 해주는 거고, 설계가 잘 되어야지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설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피스 제거 후 대나무 못으로 고정이 아니라, 대나무 못 사이에 구멍 충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설계니까.

○ ○○○ 위원

- 완료 보고 할 때,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사진 같은 게 다 첨부이 되죠?

○ 분과위원장

- 다 돼요. 보고서에 나와요.

- 그런데 이걸 설계니까요.

- 작품들이 각각 손상상태가 다르니까, 포인트별로 강조를 해주고요. 그것을 추가로 해줘요.

○ 보수업체

- 네. 알겠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자, 수고했습니다.

○ ○○○ 주무관

- 그럼 이 건은 조건부 가결인가요?

○ 분과위원장

- 네. 작품별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보충해서 달라고 해요.

□ 봉은사 목 삼존불상

○ 분과위원장

- 여기는 구청에서는 안 나왔나?

○ ○○○ 주무관

- 안 나왔습니다.

○ 문화재연구팀장

- 다음부터는 구청에서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세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일단 시작하세요.

○ 보수업체

- 저는 대연건축의 대표이사 단청기술자 ○○○입니다. 저희가 봉은사 영산전 목 삼존불상과 십육나한상 공사를 하게 됐구요.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이것은 설계예요? 보존처리예요?

- 그럼 지금 이게 개체하는 건 (허가) 받은 거예요?

○ 보수업체

- 네, 네.

- [과업 설명]

○ 분과위원장

- 지난 번 조사 나갔을 때, 지금 개체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화학안료로 되어 있죠? 박락해서 떨어지니 안쪽에 원래 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화학

안료는 전부 다 제거를 하는데 안에 원래 있던 채색된 부분은 살리면서 제거를 하세요. 상태를 보고 좋으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으면 개체하는 걸로. 개체하는 것은 옛날 방법대로, 석채에다 아교를 이용해서 바르는 걸로 하세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나무 수종은 분석이 됐나요?

○ 보수업체

- 지금은 안 되어 있고, 자문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난 후, 연화좌 양식에 맞춰서 제작할 예정입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지금 (석가불은) 상판만 바꾸고 좌우 아난·가섭은 개체를 하겠다는 얘기죠?

○ 분과위원장

- 그것까지 다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상태가 좋아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. 당시에 김정희 교수, 김창균 교수님 갔었어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근데 이게 화학안료를 잘 벗길 수 있을까요?

○ 분과위원장

- 그게 기술이죠.

(봉은사 목 십육나한상 심의도 함께 진행(업체동일))

□ 봉은사 목 십육나한상

○ 보수업체

- 십육나한상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
- [현황 설명]

○ ○○○ 위원

- 5번 보여주세요. 지금 앞부분만 보이고 뒷부분은 안 보이는데요. 뒷부분은 뭐로 되어 있나요? (발표에) 그런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. 또 한가지, 이 옷들을 벗기면 문양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? 옛날에는 그 문양이 안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.

○ 보수업체

- 그런데 저희가 멋대로 문양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안보이면 그냥 안 넣을 건가요?

○ 분과위원장

- 문양이 있으면 문양을 복사를 하고 벗겨낸 다음에 안에 천연문양이 남아 있으면 그걸 기본으로 맞춰서 해야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런데 지금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어서요. 현재 문양도 최근에 개체한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벗겨내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이 없어서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샘플이 없으면 그냥 18세기 것을 근거로 해야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게 없었다면 그려 넣는 것도 이상해서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밑에 것이 안 보인다면 새로 해 넣어야 하니까. 그럴 거면 18세기를 모본 삼아 해도 될 것 같아요. 만일의 경우.

○ ○○○ 위원

- 질문이 있는데요. 여기 현상, 화기랑 손상이 어떻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자문의견서에 내용만 있고,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.

○ 보수업체

- 저희가 자료를 미비하게 준비해서 그것은 직접 시공계획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럼 시공계획 얘기 좀 해보세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문서로 해야죠. 이걸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이걸 2억 4천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부러진 손가락은 어떻게 할 건지, 깨진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도 없어요. 벗겼는데 문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.

○ 분과위원장

- 이게 설계도 아니고 보존처리 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죠.

- 그리고 향우 4번에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은 균열이 아니라 통나무라 조립 해서 짜 맞춘 거라고 보이는데요. 이런 부분을 균열이라 하고 매워버리면 제작기법을 알 수 없잖아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기본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 방향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. 자문위원들한테 넘기는 것 말고 본인들이 깨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, 벗겼을 때 문양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..

○ 보수업체

- 깨진 부분은 저희가 수종 조사를 통해서...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런 내용이 (자료에)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어야죠.

○ 분과위원장

- 계속 상태만 얘기했지, 보존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(구청) 담당자부터 와야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래야 담당자가 감독을 하죠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럼 이 건은 설명된 겁니까?

○ 보수업체

- 십육나한상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요. 자료는 넣지 못 했어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이거는 보류를 해서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하죠.

○ 위원일동

- 동의합니다.

(업체퇴장)

○ ○○○ 주무관

- 위원장님. 그럼 봉은사 삼존불상과 십육나한상 2건 모두 보류인가요?

○ 분과위원장

- 이것도 처리 방안이 없어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(나중에 2건을) 같이 보죠.

○ ○○○ 위원

- 둘 다 보류하죠.

○ 분과위원장

- 내용이 부족하니까, 보류합시다.

(일동동의)

□ 봉은사 영산회상도

○ 보수업체

- 정보보존연구소입니다. 저희가 봉은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를 맡게 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

- [설명]

○ ○○○ 위원

-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지금 현재는 찢김하고 얼룩 밖에 없는데요. 안료 박락 부분은 없나요?

○ 보수업체

- 봉은사 영산전에 들어가서 삼존불 뒤에 있는 것을 봐서요, 그 부분은 (자세히 보지 못 했습니다).

○ ○○○ 위원

- 지금 보존처리 하시는 거죠?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봐주세요. 또한 가지는 배접 천, 장황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. 새로 짜서 넣나요? 아니면 원래 것을 쓰나요?

○ 보수업체

- 새로 짜는 겁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지금 표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새로운 천으로 할지, 아니면 지금처럼 할지,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

○ 보수업체

- 그건 사업진행하면서 회의 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

- 지금 생각은 원래 모양대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실제 누가 하는 거예요?

○ 보수업체

- 저희 회사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일하는 사람의 이력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실질적으로 누가 보존처리를 하는지요?

- 처리할 사람이 설명을 해야죠. 그래야 내가 물어보잖아요. 아까 묻은 아교로 한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, 배접을 하는데 몇 장을 할 건지.

-이걸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에 대해 경력에 대해 제출을 해주세요. 그 사람이 어떤 유물을 처리했는지.

(업체퇴장)

○ 문화재연구팀장

- 영산회상도는 승인해 주는 걸로 하고 조건을 기술자 확인(하는 게 좋겠습니다).

○ ○○○ 주무관

- 그런데 기준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 경력 15년 이상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거는 그 사람의 이력을 일단 받아두세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서울시 지정문화재, 국가 문화재 몇 점 했는지. 최소한도 3점 이상.

○ ○○○ 주무관

-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

■ 국가/서울시 지정 문화재 지정심의

□ 미타사 금보암 금동관음보살좌상/용암사 현왕도/용암사 감로왕도

○ ○○○ 주무관

- 지정심의 시작하겠습니다. 지정문화재 3건 공고 나왔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이 3건에 대해서 이견 들어온 것 없죠?

○ ○○○ 주무관

- 네. 없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럼 통과하는 걸로 할까요?

○ 위원일동

- 동의합니다.

■ 국가/서울시 지정 문화재 사전심의(전적)

□ 안동권씨세보

○ ○○○ 위원

- (설명)

○ 분과위원장

- 조사위원 중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위원님이 나가서 조사하셨는데, 여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?

○ ○○○ 위원

- (추가설명)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 하겠습니다. 이의 없으시죠?

○ 위원일동

- 네.

□ 대학장구대전

○ ○○○ 위원

-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대학장구대전입니다. 내용이나 이런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소장자께서 판본이 독특하다고 해서 살펴봤더니 실제로 판본의 특징이 특대자라고 해서 큰 글자 형태의 글잔데, 대학장구대전에는 이렇게 큰 글자로 인쇄된 것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없기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상태로 봐서는 훼손이 너무 심하고, 시기나 간행주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

요. 실제 특대자라고 해서 소장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 여부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. 이것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, 지금 당장 지정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같이 조사를 했는데, 실제로 저 판본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본입니다. 왜냐면 저 판본의 모본이 되는 책이 을해자 계통의 대형활자로 인쇄한 모본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보물적 가치가 있는 거고, 그다음에 그걸 모본으로 해서 목각을 한 것이거든요. 목각도 인쇄 상태로 봤을 때는 한두 차례 더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줄곧 이것은 조선시대 교과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 수량이 많고 엄청 종류가 다양합니다. 논문을 위해 지금까지 수집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것은 처음 본 것이예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본이긴 한데, 지금 앞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명확한 간기가 없고.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 이와 비슷한 좋은 판본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조사위원들께서 학술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
○ 위원일동

- 동의합니다.

■ 국가/서울시 지정 문화재 사전심의(회화)

□ 조문명 초상

○ ○○○ 위원

- 조사는 저하고 조인수 교수하고 윤진영 교수하고 조사를 했는데요. 조문명 초상화는 동급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, 이걸 다만 함 같은 것이 없고 하니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가하다는 의견입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그럼 지정예고 하는 걸로 하죠.

○ 위원일동

- 동의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한 가지 제안 할게요. 뒤에 사진을 보면, (조사보고서) 내용에 상황이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지정예고 할 때 이것도 하고 전체사진을 상황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나올 거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지정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.

□ 해학반도도 병풍

○ ○○○ 위원

- 같은 이화여대박물관에 해학반도도 병풍이 있는데요. 이화여대에서 처음 올릴 때는 십장생도 병풍이라고 올렸는데 제가 가서 도상을 조사해 보니까 십장생이 아니고 해학반도도여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. 작품 자체가 기존에 서

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작품성이 좋고, 이것이 이승만 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다는 전언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경황으로 봐서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정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이것도 2가지만 보충할게요.

- 작품제목을 쓰는 방식인데요. 지금 해학반도도는 제목이고 병풍은 형식이거든요. 어떤 부분에는 해학반도도, 꺾쇠하고 병풍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국가문화재에서 쓰는 방식을 따른 것인지 한번(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).

○ ○○○ 위원

- 명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그리고 이것도 상황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(사진이) 상황도 보여지는 걸로.

○ 분과위원장

- 상황도 시대 연구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

○ ○○○ 위원

- 상황에 대한 연구도 높아지고 있어서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이것도 그럼 지정예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

□ 김홍도 필 매해파행도

○ ○○○ 위원

- 다음 김홍도 필 매해파행도인데요. 김홍도의 풍속화 병풍 중에, 원래 이것도 병풍이었는데 지금은 단품으로 나와 있지만 김홍도의 작품 중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것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- 이것도 김홍도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것은 이대박물관에서 올린 거죠? 이것을 작으로 해야 되나, 필로 해야 되나.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.

- 지금 회화사에서 혼란이 있는 문제라서, 조금 정확히 원칙을 정해서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○ 분과위원장

- 이것도 그럼 지정예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

(일동동의)

□ 이경윤 필 거석분향도

○ ○○○ 위원

- 그 다음은 이경윤 필 거석분향도인데요. 이것은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. 이것은 석농화원에서 분리된 작품입니다. 석농화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몇 점이 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도 몇 점 있습니다. 이 작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, 석농화원 중에 단품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정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.

○ 분과위원장

- 앞에 3점만 지정하는 걸로 합시다.

(일동동의)

■ 국가/서울시 지정 문화재 사전심의(불상)

□ 시 유형문화재 제24호 석불좌상(보물승격)

- ○○○ 주무관
 -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불좌상인데요. 보물 승격 신청 건입니다.
- ○○○ 위원
 - (설명)
- 분과위원장
 -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서 올리는 걸로 동의하시죠?
- 위원일동
 - 동의합니다.

■ 국가/서울시 지정 문화재 사전심의(불화)

□ 진관사 석가불괘불도 및 괘불함(등록문화재)

- ○○○ 위원
 - (설명)
- ○○○ 위원
 - 이것은 국가등록문화재인거죠?
- ○○○ 주무관
 - 네.
- 분과위원장
 - 이걸 문화재청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, 국가 등록문화재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

■ 문화재 명칭 변경 심의

□ 유순정 초상

- ○○○ 위원
 - 이것은 문중에서 류로 (변경) 요청한 건데, 처음에는 초상으로 되어 있는데,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가 류흥영정으로 되어 있어서 영정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.
- 분과위원장
 - (지정예고 이견 없으면) 그럼 이대로 가는 걸로 하죠.
- 위원일동
 - 동의합니다.
 - 수고하셨습니다.